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 학생 전학 및 진학 시 정보 연계로 심리지원의 연속성 확보
- 학생 마음건강 악화 위기요인 파악을 위해 전국 단위 마음건강 실태조사 도입 및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 시행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인천)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대폭 확충하여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 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하여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기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26년 중 발의 목표)으로 근거 마련 후 추진

II.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 운영 중인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게’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와 협업을 통해 구축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화된 관리체계	(향후) 관리체계 표준화·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된 작성양식 부재(예시 안내) ▶나이스(NEIS)시스템을 통해 상담일시, 학년, 성별 등 최소 정보만 기록·관리 ▶학생 전학·진학 시 정보 미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기록 작성양식 표준화 ▶내담 학생 인적정보 및 주요소문제 등 주요내용을 수집·관리(정보 주체 동의 기반) ▶타 기관 및 분야 간 상담정보 연계

III.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 확대(6차시 → 17차시)를 추진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사회정서교육이 내실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IV.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하여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 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26년 중 발의 목표)으로 근거 마련 후 추진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간 연계와 구성원 간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V.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현장 소통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을 안내하고,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학생 마음건강 지원 관련 정책 변화 방향

2.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기관(인천참사랑병원) 현장 방문 계획

【별첨】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담당 부서 <총괄>	학생건강정책국	책임자	과장	민혜영 (044-203-6202)
	사회정서성장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이규성 (044-203-6203)
담당 부서 <학생맞춤 통합지원>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서기관	김민하 (044-203-6525)
		담당자	교육연구사	정재훈 (044-203-6536)

붙임 1

학생 마음건강 지원 관련 정책 변화 방향

구분	현재	향후
긴급지원팀	전국 56개의 긴급지원팀 운영	☞ '30년까지 긴급지원팀 100개 설치로 모든 교육지원청(176개) 지원
마음바우처	자살시도·자해학생 정신과 진료·치료비	☞ '26년부터 정신과 진료·치료비 + 위기학생 상담비 지원
학부모 미동의 학생 상담·치료	미동의 시 상담·치료 불가	☞ '26년 3월부터 학교장 상담 및 치료권고 →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
일상 회복 지원	고위기 학생 일상 회복 및 학교 복귀 지원 미흡	☞ 조력인 제도(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으로 근거 마련) ☞ 멘토링, 지역 연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27년)
학내 상담	전문상담인력 부족	☞ '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확보
학교 밖 상담	문자상담만 제공	☞ 전화 상담 및 학부모 상담 추가('27년)
선별검사	3년 주기 정기 선별검사	☞ 위기 학생이 더욱 촘촘하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26년까지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 ☞ '30년까지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 100% 달성
예방교육	선택적 6차시 사회정서교육 시행	☞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이상으로 확대('26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학생 관리정보	전학 및 진학 시 미연계	☞ 관리서식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학 및 진학 시에도 관리정보 연계 ※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으로 근거 마련
마음약화 위기 요인 파악	객관적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미 시행	☞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 '26년 정책 연구 → 학생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후 추진 ☞ '26년 하반기부터 학생 심리부검 시행으로 면밀한 원인 파악
위기학생 지원	학생의 위기유형에 따라 각 사업별 개별 지원	☞ '26년 3월부터 학생 개인 맞춤형 통합 지원

붙임 2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기관 현장 방문 계획

□ 현장 방문 개요

- 행사명 :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기관 현장 방문
- 일시 : 2025. 12. 30.(화) 15:30 ~ 16:10
- 장소 : 인천 병원형 위(Wee) 센터(인천참사랑병원)
- 참석 : 교육부 장관, 인천광역시 교육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정신건강 전문가(인천 병원형 위(Wee) 센터장)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30~ 15:40	'10 ▶ 현장 도착 및 시설 시찰 - (이동 동선) 본관 2층(도담학교, 병원형 Wee센터) → 신관 2층(협의회실)	• 비공개
15:40~ 16:10	'3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교육부 장관 모두 말씀 ▶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사 말씀 ▶ 현장 간담회 - 논의(교장, 교사, 학부모, 병원 관계자 참여)	•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사 말씀까지 공개
16:10	▶ 폐회	